Alliance against Conformity

Birth Control – Reduction of Working Hours – Equality Worldwide

한국인

2026

BgA는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Bund gegen Anpassung" (순응에 저항하는 연합 – "강제적 동일화 Gleichschaltung에 대한 저항" 라고도 할 수 있다) 은 이미 오래 전 부터 존재해 왔다. 이 연합은 오늘날보다 더 나은 (그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더 근심없고 환상에 휩싸였던) 시절에 결성 되었다. 이 연합의 기원과 목표는 문서모음집 "30 Jahre Ketzer (30주년 이단자)"을 통해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모음집은 무엇보다 이 연합의 목표인 영속성을 입증한다. 이 영속성은 오늘 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연합이 결성 되었던 더 나은 시절의, 겉보기만 희망적이었던 상황은 오늘날 명백히 더 악화되었다. 그 당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 가능했던 이러한 악화 (1970-1980년대의 특정 성과들을 안정화 시킬 모든 기회가 낭비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의 희생자들 중 일부 또한 이 악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AfD정당이나 그와 유사한 비독일 정당들은, 즉 서로 뭉쳐서 더러운 행태를 보이며 미국 거대 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획일화된 카르텔 정당들에 비해 덜 나쁜 선택을 한다), 이는 그나마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거나 혹은 제 3제국 때 보다 더 철저히 획일화 된 "언론 (미디어)" 의 손아귀에 완전히 휘둘리며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숙명적으로 감내하고, 견뎌내고 있다: 접시 위의 고기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앉아 있던 차를 눈 앞에서 갑자기 빼앗기고, 난방 또한 빼앗기며, 심지어 당국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하고, 억압당하며, 교묘하고 그럴싸한 감언이설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우고, 지적 규율을 지키거나 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한데 모으고자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많은 이들의 굳이 불필요하게 비참한 삶과 극소수의 탁월한 삶이 공존하는 주된 원인을, 대중의 재산 부재와 극소수만이 물질적 생활 기반에 대해 소유한 막대한 재산에서 찾았으며, 바로 이 재산이 그들에게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옳다. 오늘 날 그 어느 때 보다도 그렇다. 거의 전 세계가 약 500명의 미국 억만장자들에게 속해 있거나, 주식지분을 통해 그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특히 "언론 매체들"이 그러하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 및 그 권력기구들까지 그들의 통제하에 있다. 좌우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곳의 더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과소평가했던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추가되었다: 바로 지구가 과밀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혹은 아직 남아있는, 석유는 이미 거의 고갈되었다) 자원으로는 모든 인구, 혹은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풍족한 삶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 인구를 지구가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데는 지금부터 약 5세대 동안 한 자녀 가정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전제 조건이 마련될 것이며, 심지어 많은 이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악화되고 있다 – 식료

품 가격과 주차 공간 부족현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전 세계적인 한 자녀 정책을 좀 더 일찍, 예를 들어 녹색당의 설립 당시무렵부터 시행했더라면, 지금 쯤은 이미 큰 짐이 줄었을텐데!). 이 점은 기존 자원 분배와는 전혀 무관하다. 분배해야 할 공간과 자원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당연하게도 각자가 10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분배 방식 역시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일단 부차적인 요소이다. 다만 지구는 부풀릴 수 없고 (원자재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공정한 분배를 한다 해도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단 **한 세대**의 한 자녀 정책으로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 소박하지만 견고한 번영을 이룩해 냈다. 그 어떤 경제 체제도 수학적 악순환을 끊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인구가 더 적었던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권력자들도 한 자녀 가정의 이점을 깨닫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한반도 지역에 다양한 피임수단을 제공하였다, 자신의 위성국인 대한민국의 대외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 반면, 북쪽의 대외 무역은 더욱 강력하게 차단했다. 보이는가: 양나라의 생활 수준 격차가 역전되었다. 이것은 이렇게나 간단한 일이다 – 헛소리에 속지들 마라. (그게 바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제는 학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녹색당"은 처음부터 가짜였다: 그들에게 자연이나 "지구환경" 따위는 상관없었다, 출산율 감소와 이민 금지 문제는 항상 철저히 회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주제들에 대해 오직, 포기, 절제, 포기, 절제, 그리고 간섭, 통제,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만, 그것도 지극히 고집스럽고 횡설수설하며 관심을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정부패와 악의를 꿰뚫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비방과 박해를 받는 유일한 주요 야당인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는 결코 근본적인 비판에 나서지 않으며, 어떠한 포괄적인 구상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소로스, 게이츠, 록펠러, 퓨 등 미국 거대 자본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하나다** : 바로 구 산업 국가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전 세계 인구의 권리를 박탈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배를 영속화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우글거리는 군중은 유용하다; 서로 발목을 잡으며 내일과 겨울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존엄성과 이성, 그리고 저항력을 잃게 된다. 바로 이것이 소위 "재단" 의 주인들과 지배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는 대이동 시대 말기의 봉건 영주들의 목표와 유사하다 - 당시 그들의 "매개체"는 교회였으며,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했고, 그들은 프랑스 혁명이 그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권력과 농노 제도를 유지했다.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혁명은 폄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우리의 칭송을 받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 fdGO)" 는 "극도의 부정직함의 제도"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물론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대략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종교의 유급 대표자들이 자신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든, 아니면 단지 위선을 부리고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언론인, "진행자" 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논리 훈련과 기초 지식 습득을 통해 확고한 기반을 다진 강력한 이성만이 (예를 들어 : 원자란 무엇인가? 유전자란 무엇인가? 이산화탄소 순환이란 무엇인가? 민족 대이동이란 무엇이었고, 농노제란 무엇이었으며, 인권과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 이 모든 것에 대해 학교는 대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세시대와 마찬가지로 선전의 집중된 위력에 저항할 수 있다.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권력자들의 위선은 (특히 그들의 녹색 선봉대) 산아제한 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스러운 출산 조차도, 추가 출산을 억제하기 보다는 (오랫동안 선진국들에서, 심지어 태국과 같은 곳에서도 그랬듯이), 세금 혜택을 통한 출산 장려와 수많은 선전 및 "상담" 을 통해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올 해 2026년 5월 "1000만 스위스" [그 이상은 안된다!] 국민투표가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부결되도록 유도하려 했던 스위스 정부 선전에서 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수

입된 저임금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 눈물 맺힌 호소를 해야 했지만, 한 편으로는 사실 출산조절이 가져오는 실업의 소멸로 인해 연금 수급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회보장 자금이 오히려 **확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완전 고용은 "근로자" 들이 다시 파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그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 (마르크스는 임금하락으로 이어지는 이 현상을, 그는 결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괴짜가 아니었으니,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노동자들간의 경쟁" 이라고 불렀다.)

이른바 "생물다양성"이라 불리는 것의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 지구의 인구 과잉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 수마트라 코뿔소나 양쯔강 돌고래가 그저 대표적인 예이며, 곤충들의 상황은 아마 더 처참할 것이다 – 조부모님께 물어보라!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아무리 환경주의를 외치는 자발적인 바보들이 떠들어대더라도, 이를 "여섯 번째 대멸종 사건" 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번은 단일종이 우리 생물권이 허용하는 잠재적 바이오매스를 독점한 *최초*의 사건이다; 이 전의 다섯 번은 지질학적 또는 우주적 (거대 운석)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해결책은 (이미 많은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파괴되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빈곤한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파업 방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망치와 낫은 단지 이 행성에 유용한 사람들만 남기고 싶다는 것을 상징할 뿐이다. (물론 여기에는 의사, 교사, 엔지니어와 같은 비생산적인 직업은 포함되지만, 억만장자, 전문 거짓말쟁이, 정치꾼들은 제외된다).

우리는 우리의 다채로운 정기 간행물 "KETZERBRIEFE" 를 꼭 읽어 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물론 불의와 거짓의 체계 속에서는 이 출판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다. 서점들은 종종 품절되었다는 거질말을 하겠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간행물은 선전 공세에 맞서고 "강제적 동일화 (Gleichschaltung)" 에 저항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Contact:
Bund gegen Anpassung
Postfach 254, D - 79002 Freiburg
E-Mail: bund-gegen-anpassung@gmx.net
www.bund-gegen-anpassung.com